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95호
2008. 5. 8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김명수 ■ 편집인 김도기, 천영진
- 주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TEL • FAX 043-321-2719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제 36대 학회 운영의 기초

김 명 수 (회장, 한국교원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1967년 창립된 이래 한국 교육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행정과 정책의 방향을 진단·제시하는 등 한국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학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이제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혹은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40세가 되기까지 이런 저런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며, 많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 나이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주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혹이 되었다 하여, 하늘의 명을 알게 된 것(知天命)도 아니고,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 이겨 낸 것(耳順)도 아니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從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이,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업은 당장은 힘들고 우회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 고통이겠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학회를 인간에 비취 보면, 우리 학회는 탄생과, 지학(志學), 약관(弱冠), 이립(而立)을 지나 이제 불혹의 나이를 맞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불모지의 땅에 교육행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들여오고, 학회를 창립하며, 한국 교육행정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육학회 분과 연구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여 거기에 현혹되고, 휘둘리기보다는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이론적 토대 구축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제 36대 회장을 맡은 저는, 불혹의 나이를 맞은 우리 학회가 지천명을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의 초석을 놓는 것이 제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학회 운영의 기초를 세웠으며, 회원 여러분께 이를 소상히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주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학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피가 수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학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는 향후 교육행정학회를 이끌어 가야 할 신진 연구자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바, 향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을 두어 학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수는 2008년 기준으로 이미 1,500여명에 이르며,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수는 1,800여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연회비를 납부하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그에 비하여 한참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입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휴면 회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면회원의 증가는 학회 운영비의 증가 등 학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 회원의 감소를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우리 학회 회칙 제3장 9조 3항에 의거,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등 회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석·박사과정 학생들(예비 연구자)의 학회 참여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학회가 '교육'이 주(主)인 학회이기에 우리의 후속 세대를 위한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비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 예비 연구자 포럼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6월에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유 주제 또는 학위논문 주제로 1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 9월 하순에는 전북대학교에서 2차 예비 연구자 학술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석·박사과정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술대회가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학술대회는 지나치게 정책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도 소홀히 하지 않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교사와 교육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서로 만나 함께 교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학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회 사무국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의 학회지 발간 지원 사업 신청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 사업 신청과 각종 정책 과제의 수입 등 학회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화가 항상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때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며, 저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때로 학회의 변화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는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학회를 위한 잠시의 불편함이라 생각하시고, 믿음과 신뢰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논단 I I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기대 효과

김 성 열 (경남대학교)

I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들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 대화의 핵심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도 없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과 그 기초를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초(예컨대, 교육의 국가주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것 또는 이별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될 경우에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한 쪽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가지고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가져올 기대 효과를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선입관에 근거하여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정책들을 폄하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와 그것과는 상반되는 효과를 균형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립, 마이스터고교 50개 설립,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그리고 고교특색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가진 고등학교로서,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24시간 동안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습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공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숙형공립고교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서는 학교내 계층간 학력의 차이가 줄어든다. 그리고 계층간 학업성취의 격차는 학기 중에는 줄어드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방학 중에는 벌어진다. 이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기숙형 공립고교는 불리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듦으로써 학교교육력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학교의 보살핌하에 있는 시간을 늘임으로써 불리한 계층 출신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고교에 재학하는 불리한 지역과 불리한 계층 출신들은 양질의 교육을 경험하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숙형 공립고교는 공교육의 사회이동기능 및 사회통합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는 사교육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불리한 계층 출신들과 사교육기관이 없는 지역 출신들에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적극적 교육기회 평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경남의 함양고 사례를 떠올려 보라).

마이스터 고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동시에 졸업 후 취업, 국내진학, 해외유학 등이 모두 열려있는 미래형 특성화고교 모델이다.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될 수 있는 학교들로는 기존의 공업, 상업, 농업, 수산업 계열뿐 아니라, 정보통신(IT), 디지털콘텐츠, 영상미디어, 디자인, 조리, 관광, 인터넷비즈니스, 자동차, 농생명산업, 레저분야 등 각 분야의 선도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교는 고교 졸업후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들에게 그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학교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스터고교는 시대변화와 인력수요의 변화가 요구하는 장인적 직업정신과 직업수행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냄으로써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에게 고용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마이스터고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한국조리과학고나 선린인터넷고교를 떠올려 보라).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운영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하는 사립학교 모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무엇보다도 사학의 정형(定型)을 회복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교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로 하여금 설립이념에 근거한 특성을 살리면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실현할 수 있다. 설립이념이 뚜렷하고, 재정운영이 건실한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학교들이 될 것이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교 운영체제의 특성화를 통하여 고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초·중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

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 선발방식을 채택한 학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교육비를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인의 수익용 재산과 수익이 확보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등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 그 이전에 지원하던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활용하여 공립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불리한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교특색살리기 사업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들을 좋은 고등학교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고교에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하여 교원보장,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가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교특색 살리기 사업은 모든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내 집단간 성적 차이는 좋은 학교일수록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벌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교를 좋게 만드는 것은 불리한 계층의 상승적 사회이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전통적으로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개인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예로 들면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여유있는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의 비판에 현혹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불리한 계층과 지역을 더 배려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불리한 계층에 더 친화적인(friendl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유리한 계층만을 결코 위하는 것이 아니다. 불리한 계층과 불리한 지역 출신들도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데 차별받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마이스터고교에 진학함으로써 고용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고교들도 고교특색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화되는 등 좋은 학교로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에의 의존 필요를 줄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준다. 그럼으로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

는 가능성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 주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요컨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특정 계층을 배제하거나 특정계층에만 유리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포용하는 덧셈교육정책이다. 이명박정부는 불리한 계층 출신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논단 II |

이명박 정부의 중등교육 특성화에 따른 재정정책

최 준 렬 (공주대학교)

1. 서언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 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초중등 교육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이중 중등교육 특성화에 해당되는 내용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중등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해 300개의 고교를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시키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를 살펴보면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이다. 이와 더불어 300개의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1,850개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의 규모를 추정해본다.

2. 중등교육 특성화와 소요 재원

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교

기숙형 공립고교는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기숙사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동안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학교이다.

기숙형 공립고교는 매년 30개교씩 선정하여 추진하고 5년 계획으로 150개교를 추진하려고 한다. 기숙형공립고교를 운영하기 위해 먼저 기숙사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신설비용으로 학교당 50억, 총 7,500억원을, 다음으로 운영비 307.5억원, 장학금 1,625억원을 산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정된 비용은 학생수나 기숙사의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1〉 연도별 기숙형 공립고교 소요재원

(단위: 교,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학교수	30	30	30	30	30	150
건축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운영비	61.5	123	184.5	246	307.5	922.5
장학금	325	650	975	1,300	1,625	4,875
합계	1,886.5	2,273	2,659.5	3,046	3,432.5	13,297.5

기숙형 공립고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동안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중에서 시설비 7,500억원을 제외하고는 운영비 1,932.5억원이 매년 필요한 재원이다. 5년 후에도 2,00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형 공립고교가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나. 마이스터 고교 50개교

마이스터 고교는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살려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계 특성화 고교이다. 기존의 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특성화 고교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예비 마이스터(명장)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표-2〉 연도별 마이스터 고교 소요재원

(단위: 교,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학교수	10	10	10	10	10	50
시설비	100	100	100	100	100	500
운영비	50	100	150	200	250	750
기타	5	5	5	5	5	25
합계	155	205	255	305	355	1,275

마이스터 고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학교에 시설 및 기자재 개선을 위해 10억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매년 5억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학교별로 10억원의 시설 및 실습 장비 개선비용으로 명장을 양성하는 학교로 학교의 모습을 바꾸기에는 적절한 규모라 할 수 없다.

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이 설립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학교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교는 설립이념에 따라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는 재정결합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별 지원금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100개교까지 확대하면 총액이 2,500억원이 된다. 그러나 재정결합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국가장학생에게 납입금과 생활비를, 교내 장학생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소요예산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자율형 사립고 소요재원

(단위: 교,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학교수	20	40	60	80	100	100
지원비	-500	-1,000	-1,500	-2,000	-2,500	-7,500
국가 장학생	180	360	540	720	900	2,700
교내 장학생	108	216	324	432	540	1,620
합계	-212	-424	-636	-848	-1,060	-3,180

자율형 사립고교가 100개가 되는 2012년이 되어야 사립학교 100개교에 지원되는 2,5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제한다면 2012년이 되어도 절감되는 예산은 1,06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라.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고등학교도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진로별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특성화시키도록 한다.

이 사업은 선정된 해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처음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1,850개 모든 학교에 지원한다.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을 위해 총예산이 7,280억원이 소요된다. 첫해에는 450억원이 필요하지만 2012

년에는 2,780억원이 소요된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고 2차년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반반 부담하는 대응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4〉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 소요재원

연 도	대상학교수	지원예산(억원)
2008	300	450
2009	600	900
2010	900	1,350
2011	1,200	1,800
2012	1,850	2,780
합계		7,280

마. 중등교육 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에 2,280억원, 2009년에 2,954억원, 2010년에 3,629억원, 2011년에 4,302억원, 2012년에 5,508억원 도합 18,674억원이 소요된다. 5년동안 고등학교 다양화를 위해 1조 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5〉 중등교육 특성화 소요 재원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기숙형공립고	1,887	2,273	2,660	3,046	3,433	13,299
마이스터고	155	205	255	305	355	1,275
자립형사립고	-212	-424	-636	-848	-1,060	-3,180
특성화플랜	450	900	1,350	1,800	2,780	7,280
합계	2,280	2,954	3,629	4,303	5,508	18,674

4. 중등교육 특성화에 따른 재정 정책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확보되어야 할 재원이 적지 않다. 2008년에만 해도필요한 사업비가 2,280억원이나 된다. 2008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 교육 서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이도 특수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4천 7백원을 제외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3배에 달한다. 특별교부금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지만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

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제시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으로 자율형 사립학교의 예산절감분 2,500억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와, BTL의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방안 모두 문제가 크다. 먼저 자율형 사립고 예산절감분 2,500억원은 100개의 사립학교가 자율형으로 전환되는 2012년에나 가능한 확보재원이다. 그 이전에는 10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00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보다 조건을 완화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정부지원에 익숙한 사립학교가 야생초와 같이 힘들게 노력해야 할 자율형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인가. 일부의 학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100개가 자율형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0개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 절약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절약되는 비용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합 보조금의 절약분만 고려하였지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원되는 장학금을 고려하면 5년동안 절약될 수 있는 절감액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5년동안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1조 8천의 예산 중 사립학교에서 재정에서 조달될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3,000억원 정도이다. 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BTL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BTL 방식은 대도시 대학생의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분담하는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다고 여겨지지만 정부에서 기숙사비, 생활비 등 모두를 지원해 주는 고등학교에서는 손실이 더 큰 방안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 적은 비용, 적은 이자로 지을 수 있는데 BTL을 활용할 경우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이 모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방안이 치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20-30여개의 학교가 신청하였으나 일부 학교는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사립학교가 야생성을 잃고 온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야생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00개의 학교가 가능하기에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 100개가 전국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립형에 대한 매력이나 지원이 적어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교에서 절약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타 사업을 계획할 경우 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이다.

셋째,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색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예산은 많은 데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故 素石 康吉秀 교수님 영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고 소천 강 길수 교수님과 고별하는 슬픈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 강 길수 교수님께서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40여 년간 돌보아 키워주신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부족한 제가 선생님과 마지막 고별인사 말씀을 올리기 위하여 선생님 영전에 서고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병상에서 어려운 투병을 하시고 계실 때 자주 문안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힙니다. 먼저 너그러우신 선생님의 용서를 빕니다.

실은 선생님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들이 선생님께서 한국교육행정의 과학화와 교육행정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신 공로에 감사드리고 그 공을 함께 기리고저 학회장(葬)으로 장례식을 올리기로 뜻을 모으고 선생님께서 50여 년 전 연세대학교교수로 재직하실 때부터 오늘까지 사제의 인연이 이어진 제가 선생님께 마지막 고별인사를 올리기로 결정이 되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한 인생의 삶을 거두는 일 만큼 슬픔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 강 길수 교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까지 88년간의 한평생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파란 만장한 생애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선생님과 고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없이 슬프고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계에 남기신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이 하늘 같이 높아만 보입니다.

고 소석 강 길수 교수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1년 2월에 탄생하시어 1933년에 서울혜화초등학교와 1938년에 보성고보를 거쳐 1943년에 일본 명문사학인 명치대학을 졸업하시고 귀국하시어 서울 여자사범과 진명여고에서 교편을 잡으시다 해방 후 미국 국무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시어 1950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하시어 교육행정학석사학위를 받으신 후 1952년 귀국하시어, 잠시 문교부장관을 보좌하시다 1953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시어 1962년까지 재직하시다, 서울대학교로 옮겨 1981년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교육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치신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개척자 이십니다. 특히 교육행정학의 중요성을 갈파하시어 1967년에 한국교육행정학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시어 오늘의 우리 학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교육행정이론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시대의 교육행정제도 연구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어 이 분야의 개척자가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선생님과 함께 한 추억들이 새삼 그립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간에도 선생님의 생각이나 주장을 저희들에게 주입시키려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자주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시면서 많은 대화를 질기시었고 저희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감화를 주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수법을 깨달음의 교수법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년을 마치신 후에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저희 교육학회와 교육행정학회 학술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어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면 먼 길도 마다 않으시고 노구를 이끄시고 참석하시어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마는 제가 광주대 총장 재직시 전북대학의 신철순 총장의 취임식이 있던 날 선생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지팡이를 짚으시고 참석하신 것을 보고 선생님의 남다른 제자 사랑에 감탄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내는 연하장이나 서신에 꼭 회신을 해주시는 것을 지난 수십년 동안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나이를 들어 경험한바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의 남다른 생활 철학을 더욱 경모하게 됩니다.

고 강 길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학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세인의 존경을 받는 선비가 되신 것은 아마도 사모님의 내조와 영향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모님 이 윤자 여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요람인 진명여고 이 세정 교장 선생님의 따님으로 고 강 길수 교수님 못지않게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것 또한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면서 교원의 복지증진과 초중등교육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하시었고 지금도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회장직을 맡아 아동교육과 여성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이 윤자 회장님에 대한 저희들의 존경심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사모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열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난 일입니다만 선생님의 고희 때와 회수 때 그리고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금강혼 잔치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 20년 전 서울 웨라톤워커히 호텔에 있던 선생님의 고희연에 참석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축의금을 일체 사양하시고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7년 뒤에 선생님께서 회수를 맞으시던 날 조선히텔에서 고희 때와 같이 축의금을 사양하시고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뒤 몇 년 후 선생님 내외분께서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 잔치를 같은 조선히텔에서 베풀어 주시었는데, 선생님 내외분께서 신랑 신부 전통혼례복을 입으시고, 연지 끈지 바르시고, 입장하시던 애교가 넘치는 어린 신랑 신부 같은 모습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축의금은 일절 사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정말염치를 모르는 하객으로 만드시어 마음속으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선생님 내외분께서 훌륭하게 키우신 세 따님들의 지극한 효심에 저희들 모두는 크게 탄복하였으며 선생님 내외분의 남다른 모습이 저희들에게 무언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죄송스런 생각이 앞서 후에 따로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바 아니나 실천을 못하고 선생님과 영원이 작별 할 것을 생각하니 송구스런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나마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 강 길수 교수님의 살아오신 모습에서 사람이 사는 방식과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도도하고 깨끗하게 평생 동안 선비정신을 구현하시고 떠나시는 우리의 스승 고 강 길수 교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교육의 진정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남은 우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선생님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평생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석 강 길수 교수님께서 우리들과 유명을 달리 하시지만 선생님의 높은 학덕과 훌륭하신 행적이 이 땅에 기리기리 남을 것이며 고매하신 그리고 인자하신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사오니, 선생님이시여, 평안히 가시옵소서.

강 길수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근심 걱정 다 터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2008년 3월 24일

고 소석 강 길수 교수님 한국 교육행정학회장 장례위원회
위원장 제자 慎 克範 삼가 올림

학회 활동 안내

1. 제36대 학회 조직 구성

가. 회장단

- 회 장 : 김명수(교원대)
- 부회장 : 신재철(전남대)
- 감 사 : 김병찬(경희대), 남수경(강원대)

나. 이사회

〈당연직〉(29명)

김영식, 이 중, 신극범, 윤형원, 김운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선임직〉(41명)

강병운(대교협), 공은배(KEDI),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민희(교원대), 김성렬(서원대), 김성열(경남대), 김영철(한국정책연구원), 김이경(충남대), 김인희(교원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계명대), 김홍주(KEDI), 박선형(동국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박재윤(KEDI), 반상진(전북대), 송광용(서울교대), 송기창(숙명여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과부), 유현숙(KEDI), 이군현(국회의원),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이태상(상지대), 이현청(호남대), 임연기(공주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진동섭(서울대), 최준렬(공주대), 최충옥(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허종렬(서울교대)

다. 분과위원회

가) 기획위원회

- 위원장: 진동섭(서울대)
- 위 원: 김성열(경남대), 김이경(충남대), 김홍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반상진(전북대), 송기창(숙명여대),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조석훈(청주교대), 한유경(이화여대)

나) 학술위원회

- 위원장: 박세훈(전북대), 부위원장: 신현석(고려대)

- 위 원: 김 용(청주교대), 김현진(국민대), 남수경(강원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소영(KEDI), 이광현(부산교대), 이석열(남서울대)

다)편집위원회

- 위원장: 조동섭(경인교대), 부위원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 위 원: 김남순(조선대), 김재웅(서강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손희권(명지대), 신상명(경북대), 오현석(서울대), 윤희주(춘천교대), 최준렬(공주대), 한유경(이화여대)

라)국제학술위원회

- 위원장: 김이경(충남대), 부위원장: 한유경(이화여대)
- 위 원: 고 전(제주교대), 김갑성(KEDI), 김재웅(서강대학교), 박삼철(단국대학교), 박상완(부산교대), 양성관(건국대), 우명숙(교육부), 채재은(경원대), 최준렬(공주대), 하봉운(경기대)

마)홍보·규정위원회

- 위원장: 김성열(경남대), 부위원장: 조석훈(청주교대)
- 위 원: 김성기(협성대), 성병창(부산교대), 오세희(인제대), 이차영(한서대), 정수현(서울교대), 최준렬(공주대), 황준성(한국교총)

바)재정·기금위원회

- 위원장: 송기창(숙명여대), 부위원장: 반상진(전북대)
- 위 원: 김남순(조선대), 나민주(충북대), 윤희주(춘천교대), 장수명(교원대), 최준렬(공주대), 하봉운(경기대)

사)학술편찬위원회

- 위원장: 이윤식(인천대), 부위원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 위 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노종희(한양대), 박재운(KEDI), 박종렬(경북대), 서정화(홍익대), 이일용(중앙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아)정책연구위원회

- 위원장: 박영숙(KEDI), 부위원장: 전제상(경주대)
- 위 원: 김병찬(경희대), 김수영(강릉영동대학), 김홍주(KEDI), 박삼철(단국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승희(이화여대), 이장익(아주대), 임연기(공주대), 전제상(경주대), 주철안(부산대)

자)윤리위원회

- 위원장: 허병기(교원대), 부위원장: 박선형(동국대)
- 위 원: 고 전(제주대), 김민희(충북대), 김병찬(경희대), 양성관(건국대), 염민호(전남대), 이수정(KEDI), 이태상(상지대), 장한기(부경대), 정수현(서울교대)

차)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

- 위원장: 이일용(중앙대), 부위원장: 김홍주(KEDI)
- 위 원: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2. 학술대회

❖ 제148차 춘계 학술대회

- 일 시: 2008년 4월 26일(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 장 소: 강원대학교
- 주 제: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149차 하계 학술대회

- 일 시: 2008년 8월 하순
- 장 소: 미정
- 주 제: 교육행정학의 최근 연구 동향

❖ 제150차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2008년 11월 29일
- 장 소: 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6차 연차대회 및 151차 학술대회

- 일 시: 2008년 12월 13일
- 장 소: 서울
- 주 제: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가능성과 한계

3. 학술포럼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1차

- 일 시: 2008년 6월 14일(토)
- 장 소: 한국교원대학교
- 주 제: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2차

- 일 시: 2008년 9월 하순
- 장 소: 전북대학교
- 주 제: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 소: 서울 수라온
- 안 건: 2008년 사업계획 수립 및 분과위원 선정

❖ 제1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 소: 서울 수라온
- 안 건: 전문서 발간 계획 검토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2일(수) 9:00
- 장 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 안 건: 2007년 학술지 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규정 정비

❖ 제2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14일(월) 08:00
- 장 소: 서울 팔래스 호텔
- 안 건: 전문서 발간 세부 내용 협의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18일(수) 13:00
-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 안 건: 2008 사업계획 심의 의결

❖ 제1차 임시 총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26일(토) :1700
- 장 소: 강원대학교
- 안 건: 2008 사업계획 의결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6권 (2888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게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입금계좌: 농협 306-02-130364,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원고 작성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8. 1. 1 ~ 2008. 4. 30)**

- 일반회원: 김전원, 김종기, 박민정, 박승란, 박용균, 박용진, 설인환, 송영근, 송영호, 신상팔, 이상기, 이진식, 이은주, 이정민, 임운섭, 임현수, 정소성, 정애현, 하종진, 홍신기(이상 20명)
 - 학생회원: 강아영, 강희경, 고성진, 김경화, 김민지, 김시영, 김종만, 김지선, 김효진, 박명신, 박선용, 유성희, 이정민, 홍서연, 황은선(이상 15명)
 - 기관회원: 경기도교육청, 서울여대
- ※ 정보가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입현황(2008. 1. 1 ~ 2008. 4. 30)**

- 일반회원: 강경수, 강석봉, 경희, 고전, 곽상기, 김기은, 김도기, 김명수, 김성규, 김세호, 김옥예, 김용, 김용갑, 김재웅, 김형돈, 김화순, 나임, 노관민, 박상남, 박선미, 박영달, 박인, 박준기, 박춘식, 신동한, 신원학, 신재흡, 양승삼, 오대수, 오혜정, 위덕대, 유길한, 윤길준, 이정호, 이광숙, 이광현, 이기명, 이두영, 이일용, 이재덕, 이정진, 이재봉, 전상훈, 정묘진, 정일화, 정재균, 정희욱, 정하소, 조성구, 조희욱, 한광률, 황윤한(이상 52명)

- 학생회원: 구자원, 김금순, 박귀성, 이성옥, 이수진, 최원석(이상 6명)
- 기관회원: 사)한국교육, 교육인적자원, 서울대도서관, 한국교총, 가톨릭대성심, 교원대도서관, 전주교육대학교(이상 7개 기관)

※ 알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아래의 회원님께서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경희’로 입금하신 분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 윤정일: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취임
- 박선형: 동국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임
- 김이경: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부임
- 신봉섭: 나사렛대학 교양교직학부 부임
- 이병천: 대안교육의 이념과 모색(학지사, 2008. 5. 1 출간)
- 김희규: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임
- 이득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태영출판사, 08년 5월 출간 예정)
-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EPS)원장 취임
- 주삼환: 도덕적 리더십 (Thomas Sergiovanni, Moral Leadership 번역서. 시그마프레스)



공지사항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대학 기관 등에서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 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단체메일을 수신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l@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 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 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학생회원은 직업이 없는 전일제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합니다.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농협 306-02-130351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 ksseal@hanmail.net
- 전화번 · Fax: 043)231-2719
- 회 장: 김명수 (043-230-3433, 010-3337-6159)
- 부회장: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사무국: 김도기 사무국장(043-230-3413, 017-708-0174)
천영진 총무간사(043-231-2719, 018-595-0525)
신은호 편집간사(016-615-1083)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